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민간의 생활유형별 복식문화와 사회상*

-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중심으로 -

양숙향·김나형
순천대학교 의류학과

Costume Culture and Customs of Ordinary People Appearing in Genre Painting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 focusing on *Danwon Kim Hong-do's Pungsokhwachop* -

Yang, Suk Hyang · Kim, Na Hyu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Suncheon, Korea

ABSTRACT

Not much is known about Korean clothes from past centuries. Fortunately, we are able to make some inferences based on various sources of data other than the actual clothes themselves. Historical records such as Kim Hong-do's Pungsokhwa Pieces, well known to us, vividly depict features of the costume and the lifestyle of his time along with contemporary Korean humor and atmosphere. Kim Hong-do is the artist who, having accomplished pictorial refinement, recognized social change and took this into his artistic world late in the 18th century. The ruling classes, in contrast, tended to adhere to anachronistic medieval philosophies in a gradually changing society. In this study, Kim Hong-do's Pungsokhwachop, *Treasure No. 527*, preserv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as viewed from a new perspective, and it was discovered to have assorted the costume and culture of ordinary people according to their life styles. Fourteen of the pieces depicted how common citizens made their living, three described love affairs, five depicted people at play, and the rest showed elements of education, wedding ceremonies, and shamanism, respectively. Various types of clothing were observed reflecting the life styles of ordinary people, and a somewhat bold exposure of body was noticed in women's fash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y chose clothing as they pleased to fit their jobs and functions, which produced elegant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based on practical beauty. A hat - yet to be found as a relic - appeared in *Blacksmith's Workshop*, and revealed the changing social customs of the late Chosun Dynasty in the 18th century.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point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clothes.

Key words: Pungsokhwachop, ordinary people, self-regulation, practical beauty

접수일: 2004년 1월 10일 채택일: 2004년 2월 20일

* 이 논문은 2001년 순천대학교 학술연구비 공모과제로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Yang, Suk Hyang Tel: 82-61-750-3682

Fax: 82-61-750-3680 E-mail: Maria@sunchon.ac.kr

I. 머리말

우리는 지나간 세기의 옷들이 어떠하였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여러 자료들을 참고로 하여 그 시대의 옷들을 유추하곤 한다. 그 지나간 역사의 기록들 중에서 김홍도의 풍속화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림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복식이나 삶의 모습을 한국적인 해학과 정취를 곁들여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김홍도는 18세기 후반 사회의 틀이 점차 변화되는 가운데 지배층이 나뉘어오르며 중세이념을 고수하려는 상황 속에서 사회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예술 세계로 끌어들이며 회화적 세련미로 완성한 화가이다. 김홍도의 풍속화 가운데 곳곳에 맛이 살아 있는 작품은 30대의 것들로서 《행려풍속도병풍》과 《풍속화첩》이다. 그 중에서도 30대 중·후반에 그린 것으로 짐작되는 25점의 《풍속화첩》은 앞의 병풍 그림보다 좀더 성숙된 인물 소묘력으로 민간인의 삶의 정서와 풍자의 맛이 가득하고 농촌생활을 중심으로 당시를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사실화라는 점에서 우리 복식문화 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의 옛 문화 중에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고 <보물 제527호>인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새로운 각도로 분석하여 18세기 민간의 생활유형별 복식문화와 사회상을 생활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김홍도의 풍속화가 당시 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상과 복장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저고리에 바지, 치마뿐일 거라고 생각하는 서민들의 복장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당시 민간의 복식과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대 생활 한복의 원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II. 조선후기 풍속화와 단원 김홍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했던 조선후기는 양란의 상처로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으며, 농촌사회는 파폐하였다(정옥자 1993: 13). 조정에서는 양란으로 인해 궁핍해진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空名帖을 매매하거나 軍功從良, 官籍賣買 등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정책들은 양반과 중인, 서민, 천민으로 구성된 신분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동법과 농업기술의 발달은 봉건적 조선사회의 농촌 내부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자급자족적인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하던 당시 상업, 수공업, 광업의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이에 따라 금속화폐경제가 널리 성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종래의 봉건적 사회관계 내부에서 근대적인 자본주의적 관계가 싹트기 시작했다. 금속화폐의 유통은 상업자본주의를 발달시켜 서민층 부농이나 상공업 활동으로 돈을 모은 부유한 상인계층이 형성되었다. 즉 상공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켰던 것이다(한국역사연구회 1995: 451). 이러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민족적 자아의식에 바탕을 두고 현실적인 문제를 비판대상으로 삼은 실학이 대두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사상 체계를 세우려는 학문이다. 이러한 의식은 경제, 사회, 사상, 문화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김길환 1986: 400). 또한 새로이 전래된 천주교가 전통사회와 가치규범에 도전하였으며 이 시기의 문학작품 역시 서민들의 일상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표현하였다. 문화의 폭도 양반에서 서민까지 이르게 되었고, 문예 향수층은 사대부 중심만이 아닌 경제력과 지식을 갖춘 중인층이나 하급관료, 부민층까지 확대되었다.

회화에서는 조선풍이 나타나 예술가의 자율적인 표현 의지와 창조성을 일정하게 발휘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었으며, 일반 서민과도 보다 가까워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땅과 삶을 소재로 하여 사실정신을 표출한 진경 산수화와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려낸 풍속화의 유행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초기의 풍속화는 사실적이기는 하지만 인물화에서 풍속화로 전개되어 가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18세기 중·후반 풍속화는 중국의 상황을 묘사한 경지도 계열의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의 풍속과 풍물을 그렸으며, 산수배

경을 생략하여 풍속화의 주제를 화면 중심에 부각시켰다. 특히 이 시기의 풍속화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상을 소재로 한 작품이 많은데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회 전반적인 변화, 즉 '시민의식의 성장'과 '실학사상' 등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는 예술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이영화 1998: 220~221). 조선 왕조의 근본적인 정치 이념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을 내세우는 민본주의였으며, 훌륭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백성들의 풍속이나 생활상, 특히 맘홀리며 열심히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야만 했다. 바로 이러한 정치 이념과 성향이 현실적 삶을 소재로 한 풍속화를 발전시킨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과 새로운 문예 풍토 속에서 현실의 삶을 소재로 한 풍속화의 유행은 단원 김홍도(1745~?)와 같은 대가를 낳았다(이태호·양숙향 2000: 205).

단원 김홍도는 중인 출신의 화원으로서 사대부 화가였던 표암 강세황(1713~1791)의 가르침 아래 詩文書畫를 익혔다(이태호 1996: 192). 강세황은 시·서·화 삼절(三絶)로 일컬어졌으며, 남달리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사대부 화가로서 스스로 그림제작과 화평(畫評)활동을 하였다. 한국적인 남종 문인화풍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진경산수의 발전과 풍속화·인물화의 유행, 새로운 서양화법의 수용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때문에 김홍도는 성리학적 사상을 사상의 기반으로 하고 있던 진경문화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조선풍이 완전한 우리산수, 우리풍속을 그렸다. 또한 그는 외모가 수려하고 풍채가 좋았으며, 도량도 넓고 성격이 활달해서 마치 신선 같았다고 한다. 특히 국왕인 정조의 절대적인 후원 속에서 정조 어진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이태호 1996: 200). 그는 산수와 인물은 물론 화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던 인물이지만, 풍속화에서 그의 업적은 정선의 진경산수의 발전과 파급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간송미술관 1995: 6~32). 이전시대

에도 선배 화가들에 의해 풍속화가 그려지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생활상이나 그들의 생업을 간략하면서도 한국적 해학과 정감이 흐르도록 그림에 담은 풍조는 김홍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국립중앙박물관 1996: 94).

특히 본 연구에서 자료로 활용하는 <풍속화첩>에서는 강하고 생명력 있는 필선의 구사와 표정을 살린 인물묘사와 같은 독특한 화법은 동시대와 후대의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그의 풍속화가 조선후기 사회의 민중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읽게 해주며, 이는 그만큼 민중의 사회적 위상이 커진 것을 시사하기도 하며 당대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황을 소상히 살피게 해준다(안휘준 1993: 277).

Ⅲ. 김홍도 《풍속화첩》에 나타난 민간의 생활유형별 복식문화

1. 생업

1) 농업

농업에 관련된 그림으로는 <점심> <논갈이> <벼타작>(Fig.1) <자리짜기> <담배썰기> <길쌈>이 있다. 농사일을 할 때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에 맨상투를 하거나 두건을 두르고 있다. 저고리는 것이나 썩이 없는 민저고리가 <벼타작> <논갈이> <점심> 등에서 많이 보이며 반소매나 긴



Fig. 1. Rice Threshing
(중앙일보, 한국의 미 19, 1996, p.97)

소매도 보인다. 특히 <벼타작> <담배쌈기>에서는 저고리를 겨드랑이 아래로 묶어 입기도 하였으며, 아예 저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보인다. 이러한 착용방법은 더위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팔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지는 긴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리거나 잠뱅이 형태의 짧은 바지를 허리끈으로 묶어 일을 할 때 편리하게 되어있다. 허리끈에 매달려 있는 주머니는 구성상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발은 맨발이거나 짚신을 대부분 신고 있으며 가끔씩 버선의 쉽게 닳아지는 앞 뒤 볼 부분에 다른 천을 덧대어 실용성을 주었다.

여자들은 대부분 엷은머리를 하고 있으나 <점심>에서는 수건을 두르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상의로는 당시 유행하던 젓가슴이 보일 정도의 짧은 당코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활동성을 고려한 것인지 치마를 걷어올려 속바지가 보인다. 그 밖에 신발은 남자들과 대동소이하다. 길쌈을 하는 여자들의 모습도 가끔 보이는데, 이 때 화폐로도 사용했던 면포는 의복이나 물물교환 수단으로 모 든 백성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김성희·이기영 1992: 11)

아이들은 자란 머리카락을 그대로 둔 더벅머리를 하고 저고리는 옆이 트여 있다. 바지의 차림새 또한 어른들과 비슷하게 긴바지나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점심>에서 젓을 먹는 아이는 저고리를 입지 않고 어깨에 끈이 달린 바지만을 입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식은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의 활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발 또한 어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2) 어업

어업을 하는 그림은 <고기잡이>(Fig.2)단 하나만을 볼 수 있다. 남자들은 맨상투 머리에 소매와 길이가 짧거나 옆이 트인 저고리를 입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다. 소년들은 농업광경에서와 같은 더벅머리에 저고리, 바지를 입고 있다. 고기잡이 일을 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모두들 각자의 일에 간편한 복장을 하고 있다.

3) 공업

<기와이기> <편자박기>에 보이는 남자들은 맨상투 머리가 많으며 저고리는 짧은 소매이거나



Fig. 2. Fishing

(중앙일보, 한국의 미 19, 1996, p.112)

소매를 걷어올려 입었다. 긴바지를 걷어 올리거나 짧은 반바지를 입었으며 행전을 친 모습이다. 또한 허리에 달린 주머니에는 일에 필요한 간단한 도구나 필요한 물건 등을 넣어두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맨발이거나 버선에 짚신을 신고 있다. 이들의 차림새에서 여름이라는 계절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나타내려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기와이기>에서 대목과 목수로 보이는 남자들은 상투머리에 망건을 쓰고 있으며, 둔부를 가리는 긴 저고리와 바지에 행전을 치고 가죽신을 신고 있어 차림새를 갖춘 모습이다. 이는 기술을 가진 그들의 소득수준이 일반 서민들에 비해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장간>(Fig.3)에서는 삼각뿔 형태의 모자를 볼 수 있는데 <편자박기>의 대장간 남자도 같은 형태의 모자를 쓴 것으로 보아 이는 땀이나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과 함께 대장간이라는 직업을 나타내주는 특수한 모자로 여겨진다. 그 밖에도 긴소매의 저고리와 바지를 착용하고 버선을 모두 신었다.

4) 상업

<행상> <장터길>(Fig.4) <주막>에서 남자들은 머리에 병거지, 삿갓, 풍차 등 다양한 건류를 쓰고 허리길이까지 내려오는 긴 저고리에는 끈을 묶기도 하였다. 바지부리에는 보행이 많은 상인의 옷차림에 알맞게 행전을 하였다. <나룻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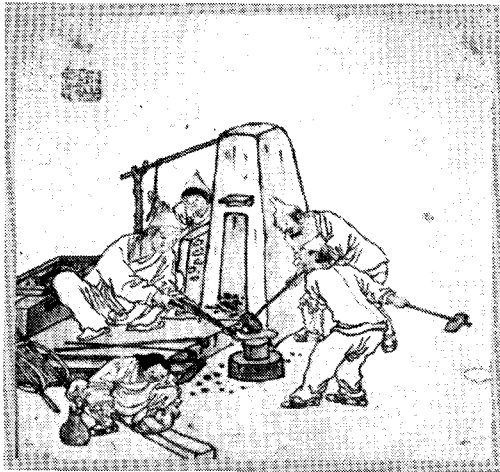


Fig. 3. Blacksmith's Shop
(국립중앙박물관 · 호암미술관 · 간송미술관, 단원김홍도, 1996, p.16)



Fig. 4. Market Place Road
(중앙일보, 한국의 미 19, 1996, p.113)

서 뱃사공 역시 노를 젓는 일에 걸맞는 짧은 저고리와 짧은 바지를 입고있다. 소년들은 더벅머리나 땡기머리이고 그 위에 초립을 쓴 모습이고 옷차림은 어른들과 같다. 여자들은 엷은머리에 천의를 쓰기도 하고 회장저고리에 남치마를 입고 있다. 그러나 <행상>에서의 여자는 덩수룩한 머리모양을 하고 아기가 들어갈 정도로 품과 길이가 넉넉한 저고리를 입고 있다. 치마자락을 들어 올리고 속바지 단 끝에 행전을 하여 건기에 편리하게 하였으며 버선과 짚신을 신고 있다. 많이

걸어서 행상을 해야하는 여인의 복식을 엷 볼 수 있겠다(김성희 2002: 66).

2. 놀이문화

놀이문화에서는 놀이의 종류와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복식을 착용하고 있었다. 먼저 <씨름>(Fig.5)에서 씨름판에 모여든 양반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맞는 남자들의 복장이 여러 가지다. 양반으로 보이는 이들은 흑립을 쓰고 포를 입었으며, 버선에 짚신이나 가죽신을 신었다. 그밖의 남자들은 맨상투머리나 망건 쓴 상투 머리, 저고리, 바지차림으로 종아리에는 행전을 하고 버선과 짚신을 신고 있다. 소년들은 짧은 더벅머리나 땡기머리를 하였으며,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다. 그 중 엷을 파는 소년의 저고리 길이는 엉덩이를 덮고 있고, 돈을 담기 위한 주머니도 저고리 아래로 보인다. <고누놀이>에서는 나무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볼 수 있다. 청년쯤으로 보이는 이들은 맨상투 머리에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고, 바지부리에는 행전이 보이며, 버선과 짚신을 신었다. 소년들은 머리를 땡거나 묶었으며, 저고리를 벗어 허리에 묶기도 하고 한쪽 팔을 내어 겨드랑이 아래로 묶어 입거나 저고리 고름을 풀어 젓혀 앞가슴을 내놓기도 하는 등 일을 마치고 즐기는 상태에서 여유롭고 다양한 착용모습을 보여준다.(조오순 2000: 98) 그리고 긴소매와 부리



Fig. 5. Wrestling
(중앙일보, 한국의 미 19, 1996, p.105)

끝에 행전을 친 바지는 숲속에서 나무를 할 때 주변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여겨 지기도 한다.

<무동>(Fig.6)에서는 무동과 약사들의 복식이 이채롭다. 무동은 둥근 모자를 썼으며, 포의 소매 끝에는 긴 한삼을 달았고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겨드랑이 아래에 메어진 포의 끈은 춤의 율동을 한층 흥겹게 해주고 있다. 바지에는 남색 행전을 치고, 천민으로서는 신기 힘든 가죽신을 신었다. 피리와 해금, 고를 연주하는 두 약사는 망건 쓴 상투 머리에 돌모를 쓰고, 저고리와 바지 위에 포를 입었으며, 그 위에 담호를 걸치고 허리끈으로 묶었다. 장고를 치고 대금을 부는 세 악인은 망건 쓴 상투 머리에 흑립을 쓰고 포를 입었다. (양숙향·강영의 1997: 186)

<활쏘기>에서 활쏘기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망건 쓴 상투 머리 위에 갓을 썼으며 소매통이 좁은 소창의 위에 뒤와 양옆이 트인 담호를 입고 가죽신을 신었다. 그밖에 다른 남자들은 망건 쓴 상투머리에 저고리와 행전 친 바지를 입었는데 소매 끝에는 긴 천이 나와있고 오른쪽 손목에는 아대와 장갑을 끼고 있다. 정신을 집중해야하는 곳인지라 다른 그림에서의 바지, 저고리와는 형태나 느낌이 단정하다.

<그림감상>에서 남자들은 망건 쓴 상투 머리 위에 유건을 쓰거나 복건 위에 유건을 쓰고 있으



Fig. 6. Boy Dancer
(중앙일보, 한국의 미 19, 1996, p.112)

며, 겹옷으로 포를 착용하였고, 버선 위에 짚신이나 검은색의 목화를 신고 있다. 이들 유생들의 복식형태는 앞에서 보았던 서민들의 간소한 차림과는 다른 격식을 갖춘 모습이다.

3. 연애품속

<빨래터>에서 여자들은 무릎뿐만 아니라 허벅지까지 속바지와 치마를 걷어올린 채 빨랫감을 방망이로 두들기거나 행귀 짜며 빨래를 하기도 하고, 머리를 땅고 있다. 바위 뒤에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이들을 몰래 훑쳐보는 포를 입은 한량의 모습이 보인다. <우물가>(Fig.7)에서 남자는 걸옷인 철릭을 풀어헤치고 있으며 물을 건네주는 젊은 여자는 젓가슴이 보이는 짧은 저고리와 치마는 속바지가 보일 정도로 걷어올려져 있고, 치마는 버선과 짚신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든 여자는 저고리의 길이가 허리까지 내려오고, 치마는 허리끈에 끼워 입었으며, 속바지의 부리에는 장식단을 덧댄 것이 보인다. 이 당시 빨래터나 우물가는 여인들의 장소로 우물가는 물을 길는 장소 외에 한마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소이며, 빨래터 역시 단순한 일터라기 보다 여자들의 사교장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자들은 집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당시의 유교적 전통 사회 속에서 이곳에서만은 다소나마 자유로울 수



Fig. 7. By the Well
(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간송미술관, 단원김홍도, 1996, p.16)

있었을 거라 생각되며 때문에 새로운 유행이 생겨났을 것이며 남녀의 연애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노상과안>에서의 양반은 넓은 흑립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으며 말을 끄는 시동은 양반 집 시동답게 소창의를 입는 모습이다. 여인은 회장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장옷을 걸치고 있다. 여인의 남편은 양반과 같은 복장형태이나 재료가 조악하여 신분과 생활의 정도가 복장의 차이에서 엿 볼 수 있다.

4. 교육문화

<서당>(Fig.8) 에서 훈장은 맨상투 머리 위에 사방건을 쓰고, 소매폭이 넓은 포를 입었으며, 허리에 검은색의 세조대를 매었다. 소년들은 땀은 머리를 하고 있으며, 일반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버선을 갖추어 신었다. 이들보다 신분이 더 높아 보이는 소년들은 저고리 위에 중치막을 입고 띠를 매었다. 망건 쓴 상투머리에 초립을 쓴 초립동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신분의 소년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 조선후기의 변화된 사회상을 보여준다.



Fig. 8. Village School
(중앙일보, 한국의 미 19, 1996, p.101)

5. 혼례문화

<신행>(Fig.9) 에서 남자들은 벵거지를 쓰고 있다. 저고리와 바지 위에는 소창의를 입었으며, 소창의 자락을 허리끈 속으로 넣어 걷기에 편하

게 하였다. 청사초롱을 든 소년은 땀은 머리에 소창의를 입었으며, 바지 부리에 행전을 하였으나 신발을 신지 못한 맨발이다. 오리아범은 넓은 흑립을 쓰고 저고리와 바지 위에 단령을 입었으며, 목화를 신었다. 신랑은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었으며, 목화를 신었다. 허리에는 대를 하였으며 손에는 홀을 들었다. 매파로 보이는 여자는 엷은머리 위에 장옷을 쓰고 남끝동 저고리와 치마를 입었으며, 짚신을 신었다. 당시 신행길에 나선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한 복식형태를 볼 수 있다.



Fig. 9. Going to the Bride's House to perform the Wedding
(중앙일보, 한국의 미 19, 1996, p.115)

6. 무속문화

<점괘>(Fig.10)에서 승려들은 송낙과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고 있다. 점괘를 보려는 여자는 엷은머리 위에 연두색 장옷을 이고 있으며, 남색 끝동 반회장 저고리와 남치마를 입었다. 돈을 꺼내기 위해 걸어들린 치마 안에 입은 바지부리 끝에는 장식단을 덧대었고, 버선과 짚신을 신고 있다. 몸종으로 보이는 처녀는 땀은 머리에 끝동이 달린 저고리를 입었으며, 치마는 걸어들려 입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보물 제 527호>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통하여 생활유형별 복식문화와 사회상을 고찰한 것이다. 유형



Fig. 10. Divination Sign
(중앙일보, 한국의 미 19, 1996, p.103)

별로는 생업이 14작품이었으며 그 중에서 농업이 6개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애풍속 3개, 놀이문화 5개, 그밖에 교육, 혼례풍속, 무속 등이 각각 1개의 작품이 있었다.

생업에서 서민들의 복식은 일의 종류와 착용자의 신분에 따라 복식의 종류, 입는 방법 등이 매우 다양했다. 먼저 가장 많이 그려진 농업에서 농사일을 하는 남자들은 주로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으로 일을 하였는데, 이는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의 특성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저고리는 한쪽 팔을 내놓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성있게 연출하고 있다. 일 하는 농부들의 역동적인 동작과 얼굴 표정에서 고된 노동의 피로감보다는 함께 노동요를 부르며 일하는 신명이 느껴진다. <자리짜기>에 보이는 남자는 상투머리에 사방건을 쓰고 소창의를 갖추어 입었고, 여자는 당시 유행하였던 짧은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한 농민으로 생각되며, 이처럼 조선후기에는 담배나 인삼 등 고수의 작물이나 면포, 비단, 모시 등의 옷감류를 생산하여 부농이 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어업 부문에서 어부나 뱃사공들의 복장은 매우 남루하다. 비록 삼면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만은 보관과 수송이 어려워 상품가치가 뒤떨어졌다. 또한 어민들은 바다의 상태에 따라 어로를 해야 했으므로 자연히 계절적, 기후적 요소에

지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어민의 생활은 어려웠을 것이며, 설상가상으로 어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매우 열악하였던 것 같다.

공업부문의 <기와이기>에서 대목으로 보이는 남자는 다른 일꾼들과는 달리 긴저고리와 긴바지에 입었는데, 이는 일반 저고리보다 길이가 길고 포보다는 길이가 짧은 새로운 저고리 형태로 보인다. 또한 가죽신을 신고 있어 그들의 소득수준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옆에 가만히 서서 감시하고 있는 남자는 소창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반보다는 부를 축적한 서민이나 상인으로 보인다. 자신의 집을 짓는 듯 일꾼들의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고깔형 모자'를 쓰고 있는데, <편자박기>의 대장간 남자도 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모자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 썼던 특수한 모자로 생각된다. 또한 그들은 대장간의 찌는 듯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긴저고리와 긴바지, 버선 등을 갖추어 입고 작업을 하고 있다.

상업활동 장면은 생업 중에서 농업 다음으로 많은 4개의 그림이 보이는데 이는 상업이 농업 못지 않게 중요성이 인식되어 가는 과정과 당시 실학사상에 바탕을 둔 사회 상황의 일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장터길>은 물건을 다 팔고 돌아가는 길인 듯 말 탄 사람들의 짐이 가벼워 보이고 아무것도 실지 않은 빈 말도 보인다. 다양한 모자를 쓰고 있으며, 말타기에 편리하도록 옆이 트인 저고리와 행전을 친 바지를 입은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어 신이 났는지 서로 떠들며 담배도 나눠 피워가는 모습이 보인다. 말을 거꾸로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이러한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고 있다. 조선후기는 상업이 발달되었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유통경제의 발달로 전통적인 농업사회였던 조선이 변화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5일장이 자리잡게 된 것도 이때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의해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것이다.

놀이문화에서 엿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계급 사회였을지라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분을 떠나

그에 맞는 옷차림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즐겼다는 것이다. 씨름은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놀이이면서 신분을 초월한 전 국민의 민속놀이였다. <씨름>에서 양반과 서민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지지 않기 위해 서로 안간힘을 쓰는 자세와 표정이 너무나 생생하며, 씨름꾼들을 중심으로 빙 둘러앉아 있는 구경꾼들의 표정에서는 마치 실제로 탄성이 터져나올 것만 같다. 옛을 파는 소년의 모습에서처럼 장사를 하는 사내아이들을 옛 볼 수 있다. 광주리와 짚신, 빗자루, 술과 같은 부피가 작은 것을 팔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한 것은 옛 장사였다고 한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흥겨운 장면을 그린 <무동>은 삼현육각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무동의 춤사위와 휘날리는 옷자락에서 신명이 느껴진다. 악사들은 복장과 신분에 차이가 나타나있다. 피리, 북, 해금을 연주하는 세 악사는 장악원이나 관청의 악사인듯하고 나머지는 일반복장이다. 이는 18세기 악인의 수요가 늘어나 궁중에 악인이 부족하게 되자 연주기능이 뛰어난 서민 연주자가 초청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태호 1995: 118) <고누놀이>는 힘든 일을 마치고 잠시 쉬는 동안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맨 바닥에 우물고누를 그려놓고 돌이나 나무로 만든 말을 따먹기에 여념이 없는 소년들의 모습에서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연애풍속으로 <노상과안>에서는 양반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여인을 넋지시 건너보는 순간을 잘 포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빨래터>에서 바위 뒤에 숨어서 이를 몰래 지켜 보고있는 양반의 모습에서도 보이는데 이는 점잖은 척하는 양반들을 해학적이며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물가>에서는 걸옷을 풀어헤치고 노골적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남자와 부끄러워하면서도 물을 건네는 젊은 여인이 그려져 있다. 젊은 여인은 당시 새로운 유행이었던 젓가슴이 드러난 짧은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으며, 이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여자들 역시 짧은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다양한 방법으로 걷어올려 입었다. 전란 후 옷감이 모자라 짧은 저고리를 잠시 입기는 하였으나 영·정조 때의 극단적인 짧은 저고리의

유행은(유희경·김문자 1998: 288) 당시 안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미적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는 사회분위기에 영향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행을 따를 수 있을 만큼의 생활의 여유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문화를 볼 수 있는 <서당>에는 민저고리 차림의 서민의 소년들과 의관을 갖춘 소년들이 함께 앉아 글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며, <자리짜기>에서 소년 역시 일하는 부모님 뒤에 앉아 글공부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 시대 교육은 양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후기가 되면서 길쌈이나 자리 등 특산물을 만들어 부를 축적한 중인이나 서민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개혁을 느낄 수 있다.

혼례문화를 보여주는 <신행>은 초례를 치루기 위해 신부의 집으로 향하는 신랑의 행렬로 청사 초롱을 앞세운 소년이 소창의를 입고 산길을 맨 발로 가고 있으며, 큰 흑립에 단령을 입은 오리아범이 전안을 매우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가고 있다. 그 뒤로는 신랑 측 어른의 말을 끌고 가는 남자가 있으며, 사모관대를 갖춰 입은 신랑과 매 파로 보이는 장옷을 입은 여자가 그려져 있다. 신랑이나 오리아범의 복장은 여유가 있는 집안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평상시 입지 못하는 유관자의 옷을 착용하여 혼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무속문화의 하나인 <점괘>에서는 승려들이 각각 송낙과 고깔, 흰색과 회색의 장삼을 착용하였으며, 점괘판을 펼쳐놓고 시주를 호소하고 있다. 불교가 민중의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복을 비는 기복 불교의 성격을 띄게 되면서 나타난 광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승유역불 정책으로 어려워진 승려들의 생활이 그들을 거리의 시장으로 내몰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나가던 여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돈을 꺼내기 위해 장옷을 머리에 이고 치마를 들어올려 안에 있던 주머니를 열고 있다. 당시 조선에서 사찰의 경제적 어려움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여인들과 친밀한 무속은 종교적인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고 한다. 몸종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여유가 있

는 계층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첫째, 생활유형별로 다양한 복식의 형태를 알 수 있었다. 서민들의 복식이다 보니 유물로도 남지 않고 기록도 없고 그러다 사라진 우리의 옷. 때문에 우리들은 흔히 조선시대 서민들의 옷 하면 그냥 저고리에 바지뿐일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새로운 각도로 살펴본 결과 이 당시 서민들의 복식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었으며, 복식의 종류나 형태, 착용방법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선후기 여성들의 과감한 노출 패션을 볼 수 있었다. 전란 후 옷감이 모자라 짧은 저고리를 잠시 입기는 하였으나 영·정조 때의 극단적인 짧은 저고리의 유행은 당시 안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미적 욕구가 강하게 반영되는 사회분위기에 영향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하는 일에 따라 옷차림을 자유자재로 연출하여 실용미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창조성이 돋보였다. 그 동안 조선시대 서민들의 복식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홍도의 풍속화첩 속에는 200백년전 조선시대 백성들의 복식이 매우 다양하고 감각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즉 이들은 복식을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맞추어 자유자재로 연출하여 입었던 것이다. 여기에 여성들은 미적인 옷맵시를 한껏 살려내어 입었다.

넷째, <대장간> 그림에서 아직까지 유물로 발견된 적이 없는 모자를 볼 수 있었다. 현재 별다른 정식 명칭없이 '고깔형 모자'로 불리우고 있는 이 모자는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머리에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었다.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이 모자가 김홍도의 풍속화첩에서 발견된 것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다섯째, 조선후기의 변화하는 사회상을 볼 수 있다. 상공업의 발달과 특산물의 생산으로 부유해진 부농서민의 자식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모습이나 서민과 양반이 서로 어우러져 놀이를 즐기는 풍속 등은 18세기 변화하던 조선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사진으로 새로운 사회를 향해 성장해가던 조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과거의 역사가 남긴 그림 한 장도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또 다른 관심과 눈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어떠한 사료보다도 생생한 역사의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우리 옷의 세계화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잊혀졌던 서민들의 다양한 복식 형태를 생활한복의 좋은 본보기로 삼아 우리 옷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재창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1996), 단원 김홍도. 서울: 통천문화사, pp.94-96.
- 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간송미술관(1995), 단원김홍도. 서울: 삼성문화재단, pp.6-32.
- 국립중앙박물관·호암미술관·간송미술관(1996), 단원김홍도, 서울: 김운한편집, p.16.
- 김성희(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서울: 학지사 p. 66.
- 김성희·이기영(1992), 전통사회 여성의 가내노동의 특성과 경제적 가치, 서울대 생활과학 연구소 생활과학연구 제 17권, 11.
- 김길환(1986), 조선조유학사상연구 서울: 일지사 p.400.
- 안취준(1993), 한국 회화사. 서울: 일지사, p.277.
- 양숙향·강영의(1997),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통해 본 18세기 민간의 복식과 생활상, 순천대학교 논문집 제 16권, 186.
- 유희경·김문자(1998),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88.
- 이영화(1998), 조선시대 조선사람들, 서울: 가람기획, pp.220~221.
- 이태호(1996), 조선후기 회화의 사실정신, 서울: 학교재, p.192 p.200.
- 이태호(1995), 조선후기 풍속화와 기록화에 나타난 연주장면, 한국학 연구 7, 118.
- 이태호·양숙향(2000), 간송미술관 소장 풍속화첩을 통해 본 19세기 민간의 복식과 생활상, 한국불교미술사학회 15호, 205.
- 정옥자(1993), 조선후기 지성사, 서울: 일지사, p.13.
- 조오순(2000),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첩에 나타난 서민복식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제4권 제3호, 98.
- 중앙일보(1994), 한국의 미 19 풍속화. 서울: 중앙일보사, pp.95-115.